

The Recent in Music Education

음악교육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보고서 2020 Fall Seminar Report

김 영 미*
Young Mee Kim

한국음악교육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및 「2020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를 〈원격 학습 기반의 상호 음악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주제〉로 2020년 10월 29일과 30일 2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회는 사전 녹화된 4개 발표와 지정 토론 후 즉석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었다.

10월 29일 제1발표는 ‘국악기 연주 앱을 활용한 음악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이돈웅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조선대학교 김지현가 토론을 맡았다. 온라인 렉처 콘서트 I은 장한솔 음악감독의 해설과 함께 엘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인 ‘올투게더페스티벌’ 영상을 감상하였다. 제2발표는 ‘온라인으로 뮤지컬 수업하기’로 서울대학교 공혜린·김도아 교사가 발표하고 광주교육대학교 윤관기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10월 30일 제3발표는 ‘비대면 악기연주 교육의 실제’로 꿈의 오케스트라와 평창-함께 걷는 아이들 상 위관악단을 지도하고 있는 장한솔 음악감독이 발표하고 교원대학교 민경훈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온라인 렉처 콘서트 II는 이돈웅교수의 해설로 ‘로봇 연주’ 영상을 감상했다. 제4발표는 ‘호주학교와 원격 문화예술교육-음악수업’으로 계명대학교 구경연교수가 발표하고 경상대학교 조대현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작곡가 명예교수인 이돈웅교수는 현재의 우리음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의 우리 음악이 해결하고 이루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 음악을 서양 어법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 개발과 악기 개량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리 음악을 디지털화해서 가상악기를 제작하여

* 계명대학교 교수

음악 수업 시간에 우리 음악 연주와 소리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에서 개발한 국악 앱, 국악 가상악기, 국악 표현기호 폰트 개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더불어 렉처콘서트(온라인 렉처콘서트 1)에 소개할 '연주하는 로봇'과 인공지능 연주 로봇의 가능성에 미래 음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김지현교수는 국악앱의 대중화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논하였고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연주로봇 사용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공혜린·김도아 교사는 '온라인으로 뮤지컬 수업하기' 프로젝트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뮤지컬 활동 수업을 하고 무관중으로 공연하여 이를 녹화하고 성찰하는 전체 과정을 소개하였다. 활동은 실제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극본 구성하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인물 설정, 가사 쓰기, 대사와 노래의 연결, 국어 문법과 음악문법의 일치 등 극 구성요소 학습과 발성과 다양한 노래형태 등 음악요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소그룹으로 지도하였다. 음악극을 공연 무대에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완성하고 공연을 녹화한 후 관람하고 성찰하였다. 뮤지컬하기 활동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녹화 및 녹음 장비 구축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수업만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수업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윤관기교수는 온라인 공연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며 공연영상을 함께 보고 성찰하며 새로운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의 보완제 역할이었다는 논의점을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꿈의 오케스트라·평창과 함께걷는아이들 상위관악단을 지도하는 장함솔 음악감독은 '비대면 악기연주 교육의 실제' 주제로 비대면으로 합주를 지도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다. 문화적·교육적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연주와 합주 교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음악 감독과 음악 강사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다. 음악감독은 합주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음악강사는 이론 수업과 파트별 연습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지도하였다. 파트별 지도를 위해 과제를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동시에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학생들과 렉슨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 방송을 열고 방송에서 즉각적 연주와 설명으로 학생들의 의문점에 설명하고 연주하여 들려주는 노력을 하였다. 민경훈교수는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인 ZOOM 또는 Doczoom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합주를 위한 소프트웨어 '싱크룸(syncroom)' 사용에 대해 제안하고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전체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음악교사 단독으로 온라인 합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경연교수는 현직교사들과 함께 5년 동안 호주 학교와 우리나라 학교 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호주학교와 원격 문화예술교육’ 즉 ‘Global LYNCs 프로젝트’ 중 음악 수업 모형을 발표하였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된 ‘Global LYNCs 프로젝트’에는 음악수업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에서 제시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원격 수업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과 언어를 융합하여 교육하는 국제협력학습 기본 수업모형에 상호·문화적 음악교육 3단계 수업모형을 더하여 음악교실에서 국제원격 협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 모형은 “수업 전-수업 중-수업 후” 3단계로 나누어 파트너 국가와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직접 학습 내용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모형이다. 토론을 맡은 경상대학교 조대현교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상호문화 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연구와 국가간 원격교육으로서 상호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라인 렉처 콘서트 ‘올투게더페스티벌’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함께걷는아이들 울기즈스트라 상위관악단,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성북, 꿈의 오케스트라-평창 단원들이 함께 합동하여 총 8개 악곡을 연주하였고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협연을 하였다. 온라인 렉처 콘서트 II ‘로봇 연주’는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실험 연주, 현악 5중주와 협연, 킨텍스 전시 로봇 연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COVID-19로 인해 물리적 장소에 모여서 발표와 토론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녹화를 하고 이를 실시간 ZOOM으로 송출하고 논의하는 방식의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2020 추계학술대회」 및 「2020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는 풍성한 발표와 콘서트로 구성되었고 녹화 영상이 송출되는 동시간대에 참여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올리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하며 대면 학술회에 버금가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발표에서 소개되고 토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자료, 매체, 비대면 지도방안을 더 연구하여 효과적 비대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현재 사용 중인 플랫폼을 보완하여 음악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적극적 프로젝트 진행이 필요하다.

